

## - 녹취록 -

## 반자본주의신당(NPA) 경제대안

발제 : 세드릭 뒤항(Cedric Durand) 반자본주의신당 경제정책담당

토론 :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대성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사회 : 김민재 2009파리국제정책포럼 정책팀장

**김민재** : 오늘 함께할 분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Nouveau parti anticapitaliste)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세드릭 뒤항이다. 박수로 시작하겠다.

### “현 위기는 특정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전반의 문제”

**뒤항** : 동지 여러분의 초대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반자본주의신당은 아직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민주노동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우리 당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2년전부터 시작된 오늘날 경제위기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다. 2007년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은 금융위기로 전이됐고 전 세계는 경기불황기에 접어들었으며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어 최악의 전반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어느 특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전반의 문제다.

우연히도 여러분과 만난 오늘은 정확히 1년 전 월스트리트(Wall Street) 미국주식시장이 무너진 날이다. 그런 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나 BNP파리바은행(BNP Paribas) 등이 보너스잔치를 하는 등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때 우리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악순환은 반복된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구매력이 감소하고, 구매력이 감소하면 또다시 경제위기가 오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따른 것으로 제대로 못 걷는 사람에게 목발 2개를 준 것과 같은 것이다.

1929년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낱땀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대안을 마련하고 활동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현 위기는 특이하고 생경해 보인다.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펀드(Fund),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생소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남발로 인한 위기다. 이런 이상하고 복잡한 파생상품이 나오면서 경제위기가 유발됐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실 이번 금융위기는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자본주의자들은 집값과 주가 등 모든 가치가 오르면

그것이 무한대로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방금 큰 난리가 났는데도 투자가 계속되는 거다. 그러다 원했던 만큼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모두가 패닉상태에 빠져 다 팔아버린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16세기부터 있어왔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먼저 자본을 금융화해 이윤극대화에 늘 성공했고 그 다음 시장자유화와 자본자유화 등 모든 것을 자유화했다. 국제적인 자유경쟁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국제화라는 말을 붙였다.

### “경제위기의 부담을 우리 노동자들이 지불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우리 당의 경제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세가지 부분을 설명하겠다.

첫째, 자본금융화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연동되고 있다. 자본의 금융화는 1970년대말에서 1980년 사이에 나타났다. 1979년 미국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s)이 이자율을 올린다든지, 금융의 영향을 분산시키는 등의 정책을 볼 수 있다. 금융화의 결과 금융위기는 전반 각각 다른분야에 연동되고 전세계로 번지게 된다. 멕시코의 국가채무문제로 인한 경제위기가 1982년과 1994년에 발생했다. 1997년 남코리야를 비롯한 아시아에 IMF사태가 왔다. 러시아는 1998년, 아르헨티나에는 2001년에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둘째, 자본금융화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주주의 배당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다.

셋째, 자본금융화는 한마디로 모든 것의 자유화를 가져온다. 시장경제의 힘이 막강해지고, 민영화가 자유롭게 이뤄지며 노동시장역시 자유화의 대상이 된다. 또한 모든 것을 시장화, 상품화한다. 무역이든 금융이든 점점 세계화되고 자유경쟁으로 나간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날의 경제위기가 온 거다.

지금 우리는 특이한 구조에 있다. 신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위기 등 복잡한 구조, 그리고 갈수록 부르주아는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계급은 우리의 주장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 한국, 라틴아메리카 등 진보진영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혁명은 아니래도 혁명전야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우리 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위기가 오니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사회보장을 위한 예산도 줄이려고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자본주의자들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우리가 이 투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게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파괴해야 한다. 지난 십수년 투쟁했지만 우리는 늘 패배했다. 자본주의자들은 금융, 자산, 투자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자꾸 자유무역을 주창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관계, 노동관계를 전부 다 자유화하려고 한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된 경제위기의 부담을 우리 노동자들이 지불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단결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우파정권에 참여하며 신자유주의정책을 펴고 있는 사회당과의 연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에게 제안할 것이 많다. 우리는 환경사회주의, 경제사회주의(ecosocialism) 등을 21세기사회주의라고 한다. 필요에 따라 부의가치를 증가시키고 생산을 조직하며 계획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즉 생산, 판매, 소비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파괴하고 합리적인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부분을 줄여서 간단히 요점만 설명했다. 감사하다.

**김민재** :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다. 토론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토론하면 되겠다.

### “경제위기를 기회로 자본주의정부가 국민혈세로 국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김장민 :**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김장민이라고 한다. 파리포럼에서 많은 석학과 전문가를 모시고 자본주의 위기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처방에 대해 듣고 있다. 오늘 뒤향의 발제는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명료한 것 같다. 경제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과정에서 대안의 하나로 중앙은행 국유화를 통해 국가가 지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의 발권기능을 폐지하지는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대안이 화폐로 인한 불안정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뒤향 :** 두가지 다른 대답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유화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질문이다. 자본주의자들은 국유화를 포기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돈을 기업에 지급한다. 그리고 금융재정을 조절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돈은 주면서 감독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복잡해진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국가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지속되어왔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자본주의정부가 금융을 제대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 논리에 의하면 금융의 모든 활동은 사적 영역이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이자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정부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사회주의화해야 한다. 이것이 흥미로운 토론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주의화해야 하는가. 금융기관을 다 지배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중앙과 지역 등 사회적 기능에 따라 나눠서 지배해하는가. 금융문제를 조절하는 것은 경제활동방식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주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유화는 자본가의 돈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국유화의 성과가 어디로 집중될 것인가. 무엇을 위한 국유화인가 하는 점을 주시해야한다. 이런 경제위기를 기회로 자본주의정부가 국민혈세로 국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화라는 것으로 자본가의 손실을 그 이전 상태로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때가 되면 고스란히 자본가의 손에 넘길 수도 있다. 지금의 국유화는 자본가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 국유화로 국민혈세를 자본가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전반 구조적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불경기든 호경기든 자본가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다.”

**김대성 :**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김대성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자본주의신당의 대응방식에 대해 알고 싶다.

**뒤향 :** 호경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호경기에도 반드시 위기는 있다. 호경기에도 불황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동자, 농민은 늘 피해자다. 경제위기가 오면 비인간적인 위기대응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 생긴다. 불경기든 호경기든 자본가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다. 자본가에게는 돈이 전부다. 불경기든 호경기든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경제 위기 때는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쟁할 것인가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포기하자’ 혹은 ‘가만히 있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경제위기를 잘 분석해서 단기투쟁, 장기투쟁에 대한 조직을 잘 해야 한다.

**“정책적 차이는 토론하고 협의하며 해결해나간다면 공동대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민재 :**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의 정책을 보면 유럽좌파당(프랑스공산당,프랑스좌파당)과 유럽반자본주의좌파(반자본주의신당)의 경제위기에 대한 기본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반자본주의신당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분인 만큼 정책적인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싶다.

**뒤향 :** 좌파당에도 여러 차이가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다르다. 프랑스공산당은 제2인터내셔널 프랑스지부로 부터 시작됐지만 시민주의정권하에서 장관 등 각료로 참여한 적도 있다. 프랑스공산당 지도자들은 2002년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장관을 했다. 프랑스좌파당의 당대표인 장-뤽 멜랑송은 프랑스사회당에서 탈당해 좌파당을 만들었다. 프랑스사회당은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였다. 그러나 우리 반자본주의신당은 역사적 전통이 전혀 다르다. 우리당은 1960년대 트로츠키주의에 기반한 투쟁적인 정당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으로부터 나왔다.

현 경제위기의 상황에 대해 모두 단결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한편, 각 당의 단장기계획에 의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공산당 동지들은 사회당과의 연합전선으로 지방선거에 승리해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공산당동지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와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좌파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문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다. 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파당과의 연합전선으로 공동투쟁할 생각이다. 이런 공동투쟁을 강화해서 자본주의, 즉 시민주의와의 연합으로 극좌파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다.

**김민재 :** 정책적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각 당의 역사적 과정이나 활동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한 것인가.

**뒤향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으나 각 당의 역사가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은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며 해결해나간다면 공동대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년선거의 구체적인 선거공약이나 선거유세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수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다. 공산당 동지들은 우린 그렇게 못한다며 선을 긋는 때가 많다. 공산당이 사회당과의 연합으로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조건에서 같이 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공산당 당수인 마히-조흐즈 뷔페가 중앙정부에 참여한 기간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가장 많이 되었다. 우리로서는 이런 정책에 참여하는 정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시기가 새로 혁신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한다”**

**김민재 :** 너무 막연한 질문일 수 있겠다. 이를테면 공산당이라는 이름은 그 당의 대안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반자본주의신당의 반자본주의는 대안은 아니다.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며 만들고자하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관한 세드릭의 의견을 듣고 싶다.

**뒤향 :** 맞는 말이다. 당의 대안에 딱 맞는 이름을 정하는 것은 늘 어렵다. 어느 특정 기간에 맞게 정할 수도 있고, 개성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의 시기가 새로 혁신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공산주의, 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등 여러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당 재건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에 대해 매우 간단히 정리하겠다. 사회주의는 대중에게 유리한 것이며 생산에서 나오는 이득만 취하게 해서는 안된다. 생산만을 위한 자유경쟁은 막아야 한다. 소비 역시 필요에 맞게 진행돼야 하며 더

불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김민재** : 오늘 발제와 토론 잘 들었다. 귀한 시간을 내준 세드릭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세드릭의 한마디를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세드릭** : 이 자리에 초대해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오늘 훌륭한 질문도 많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코리아의 현실에 대한 토론도 하고 서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위기가 전세계로 전방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이렇듯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매우 감사하다.

**김민재** : 큰 박수로 마치겠다. <끝>